

癸未使行時의 筆談唱和와 大阪의 混沌社*

김 성 진**

차 례

- | | |
|-----------------------|------------------------|
| I. 序論 | III. 癸未使行團과의 筆談唱和와 混沌社 |
| II. 癸未使行團과 木村巽齋의 蒹葭堂會 | IV. 結論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계미사행시의 한일양국간 필담창화가 混沌社라는 關西지역 詩社의 창립과 융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계미사행이 混沌社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하면서도 이에 앞서 木村巽齋(=木世肅, 木孔恭)와 蒹葭堂會에 대해 언급한 것은 蒹葭堂會가 混沌社의 모체가 되었고, 蒹葭堂會를 이끈 木村巽齋가 片山北海(=片猷)와 함께 混沌社의 흐름을 주도했음을 고려한 때문이다.

계미사행 이전은 물론 계미사행의 귀국 이후에도 국내의 어떤 문헌에도 混沌社를 언급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木村巽齋와 蒹葭堂會에 대해서는 계미사행의 문사들과 이들과 교유했던 박지원과 이덕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무 등의 문집에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는 계미사행 이후로는 江戸로 가는 통신사행이 단절되었으므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關西지역 지식인들의 동향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미사행시 大阪 객관에서 필담창화를 나눈 蕪葭堂會의 멤버들이 그대로 混沌社의 창립을 주도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계미사행이 귀국한 지 2년이 지난 1766년 5월에 木村巽齋등이 ‘전례 없이’ 對馬島와 倭館을 거쳐 詩札을 보내온 것에 주목하면서, 이는 蕪葭堂會가 발전적으로 해체된 후 混沌社로 출범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러한 추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보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筑常과 木村巽齋 등이 1766년 5월 南玉 등에게 ‘전례 없이’ 詩札을 보내온 사실에 주목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계미사행의 문사들과 蕪葭堂會의 멤버들은 모두 학문적으로 程朱學을 존승하고 徂徠學에 비판적이었다는데 공통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사상적인 동질감은 이들로 하여금 필담창화를 통한 문학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蕪葭堂會의 발전적 해체와 混沌社의 창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계미사행시 남옥등과의 필담창화와 교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那波師曾은 물론 柴野栗山, 尾藤二洲, 古賀精里 등이 모두 程朱學을 존승하고 徂徠學에 비판적이었고 이들에 의해 이른바 ‘寬政의 學制改革’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混沌社의 창립은 물론, 混沌社의 멤버였던 柴野栗山, 尾藤二洲, 古賀精里 등에 의해 주도된 ‘寬政의 學制改革’ 역시 넓은 의미로 볼 때, 계미사행시의 필담창화를 통한 양국문사간의 문학적 교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蕪葭堂會의 주축이 된 인사들이 程朱學을 존승해왔기 때문에 역시 程朱學을 존승하는 계미사행단과의 접촉에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계미사행단과의 접촉이 徂徠學을 비판하고 程朱學을 존승하는 경향을 강화

시킨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인 동시에 앞으로 밝혀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주제어 : 筆談唱和, 癸未使行, 南玉, 成大中, 元中舉, 那波師曾, 蒹葭堂會, 木村巽齋, 混沌社, 徂徠學, 柴野栗山, 尾藤二洲, 古賀精里, 日本錄, 日觀記, 乘槎錄

I. 序 論

癸未使行은 한일교류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通信使行이다. 조선후기의 12차례 通信使行 가운데 江戸까지를 왕복한 마지막 사행이었다는 점 외에도, 이전의 어떤 통신사행보다도 관련 사행기록이 양적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세하고 정확하며 필담창화 역시 다양하고 성대하게 행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상사 내지 한문학사에서 비중 있는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寬政의 學制改革, 곧 ‘異學의 禁書’을 주도한 賴春水와 柴野栗山·尾藤二洲·古賀精里 등의 이른바 ‘三博士’도 계미사행시의 한일문사간의 문학적 교류와 무관하지 않다. 寬政의 學制改革에는 당시 幕府의 儒官이었던 柴野栗山에게 那波師曾의 문인인 西山拙齋가 편지를 보내어 ‘異學의 禁’을 건의하도록 권고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¹⁾고 하는데, 이에 앞서 元中舉 역시 太學頭인 林信言에게 이단을 통렬히 금할 것을 권한 바 있다.²⁾ 그리고 那波師曾은 接伴僧인 維天長老承瞻의 書記를 자원하여 大阪에서부터 江戸까지의 왕복노정에서 통신사 일행을 護行하면서 程朱學의 존숭과 관련된 필담을 나누곤 했으며³⁾, 柴

1) 猪口篤志, 『日本漢文學史』, 角川書店, 1984, 325-329쪽.

2) 元中舉, 『乘槎錄』 3월 10일조, “痛禁異端, 明示好惡, 使不至播惡於後學, 實正世道之先務.”

3) 拙稿, 「癸未使行時の 南玉과 那波師曾」, 『한국문학논총』 40집, 한국문화회, 2005.

野栗山은 昌平黉의 학생 신분으로 남옥등과 필담창화를 했다. 柴野栗山에 이어 尾藤二洲와 古賀精里가 幕府의 儒官으로 寬政의 學制改革을 마무리했는데, 尾藤二洲와 古賀精里는 賴春水와 함께 混沌社의 동인으로 활동하다 幕府의 儒官이 되었다. 古賀精里는 幕府의 儒官으로 있다 1811년에 對馬島에서 易地交聘 형태로 진행된 辛未使行時 일본측의 副使로 활약했다.⁴⁾ 寬政의 學制改革과 混沌社가 계미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계미사행시의 조선측 문사들과 일본 관서지역 문사들의 교류가 混沌社의 창립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는 것은 混沌社가 江戸시대의 日本漢文學史 및 日本思想史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기도 하고, 한일양국 문사간 교류의 대표적인 방식인 필담창화가 일본의 문단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계미사행기록은 물론 그 이후의 어떠한 문헌에도 混沌社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蕪葭堂會와 이를 주도했던 木村巽齋에 대해서는 계미사행기록과 그 이후의 문헌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南玉의 『日觀記』에는 계미사행이 귀국한 지 2년이 지난 1765년 10월에 木村巽齋등이 왜관을 통해 詩札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이는 남옥의 말처럼,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木村巽齋등이 詩札을 보내온 것은 계미사행 당시 필담창화를 통한 양국 문사간의 교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성대중이 木村巽齋에게 蕪葭堂에서의 시회를 여는 것, 즉 蕪葭堂會를 내용으로 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木村巽齋는 계미사행단이 大阪에서 조선으

참조.

- 4) 이때 古賀精里와 그의 門徒인 草場佩川 등이 조선측 문사들과 시문증답을 하고 필담을 나누는 것을 기록한 것이 『對禮餘藻』 『馬島客館筆語』 『倭韓詩文集』 등이다. 이 가운데 『馬島客館筆語』는 『對禮餘藻』의 6월 21일조 필담만을 따로 취하여 엮은 것이니, 辛未使行時의 양국 문사간 필담은 『對禮餘藻』에, 詩文唱酬은 『倭韓詩文集』에 모아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로 귀환하기에 앞서 성대중이 요구했던 蕪葭堂雅集圖를 계미사행단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詩札을 보내왔던 것이다. 木村巽齋가 詩札을 보내온 것이 단순히 편지를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일본 關西지역 문화계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최근 계미사행의 사행기록들이 시리즈물로 번역되었고⁵⁾, 계미사행의 사행기록물만을 학위논문과 專著가 나오고 있지만⁶⁾, 混沌社와 계미사행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혼돈사의 창립과 운영, 그리고 관련일화를 폭넓게 기록하고 있는 賴春水의 『在津記事』 및 『師友記』를 중심으로 蕪葭堂會와 混沌社의 상호관계, 그리고 계미사행단이 蕪葭堂會 및 混沌社 멤버들과 왜 남다르게 친밀감 내지 동류의식을 느끼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癸未使行團과 木村巽齋의 蕪葭堂會

계미사행단이 木村巽齋와 蕪葭堂會를 인지하게 된 것은 사행단이 藍島에서 만난 龜井魯와의 필담창화 이후인 듯하다. 大阪의 客館에서 성대

5)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日觀記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성대중 지음, 홍학회 옮김, 『日本錄 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원중거 지음, 박재금 옮김, 『和國志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乘槎錄,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6) 신로사, 「元重學의 『和國志』에 關한 研究: 그의 日本認識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안대수, 「1763년 癸未使行에 관하여: 『金甌記』와 『寶曆物語』의 비교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과 동일), 강순애외, 『우상잉북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중이 筑常과 필담을 할 때 “제가 전에 筑州를 지나면서 龜井魯를 만나 그의 『東遊集』을 보고 이미 世肅과 麗王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⁷⁾라고 한 바 있다. 성대중의 말처럼, 사행단은 龜井魯와의 만남을 통해 木村巽齋와 蒹葭堂會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이다.⁸⁾ 이에 앞서 사행단은 1월 21일에 大阪城에 들어가 바로 그 다음날인 1월 22일에 大阪의 문인들과 시문창화 및 필담을 나누었다. 남옥은 『일관기』에 이날 그와 창수를 하고 필담을 나누는 문인들을 기록하면서 木村巽齋에 대해 이렇게 썼다.

木弘恭 字는 世肅 號는 蒹葭堂. 浪華 위에 堂을 열고 중국의 奇書들을 쌓아 놓고 해마다 천여 종씩 사들였다. 날마다 사방의 시와 술을 즐기는 무리들을 모았다. 호걸스러운 선비로 이름이 났으니 곧 龜井魯가 칭찬한 사람이다.⁹⁾

이날 남옥이 만난 일본측 문사는 源文虎, 南川維遷, 奧田元繼, 木弘恭, 左詢, 長維往, 齊震, 芥煥, 芥元澄, 井高登, 堀玄圭, 稻其昌, 內山之明, 富維章, 石方董, 岡王謙, 福尙脩, 片猷, 僧義端 등이었는데, 남옥은 유독 木村巽齋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細注를 달아 설명하였다.¹⁰⁾ 이밖에

7) 筑常, 『萍遇錄』 5월 3일조, “龍淵曰:‘僕前過筑州, 遇歸龜井魯. 見其東遊集, 已知有世肅麗王輩’”

8) 賴春水の『在津記事』 ‘筑前龜井道載’條에 의하면, 龜井魯가 京都에 일이 있어 大阪을 지나면서 小石元俊의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蒹葭堂 주변인사들과 교류하게 된 것 같다. 龜井魯는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元俊의 집에 머물렀다고 한다. “筑前龜井道 名魯, 號南溟. 有事于京, 過大坂, 寓元俊, 以故交也. ……上京竣事, 又寓元俊”

9) 남옥, 『일관기』 秋 1월 22일조, “木弘恭, 字世肅, 號蒹葭堂. 開堂於浪華之上, 畜中國奇書, 歲買千餘種, 日會四方詩酒之徒, 以豪士名, 龜井魯所稱也.” 木弘恭은 木村巽齋의 잘못된 기록, 우리측의 기록에는 모두 木弘恭이라고 실려있으나 이는 木孔恭의 오기이다.

10) 원중거 역시 같은 날의 기사에서 “木弘恭은 字가 世肅인데, 바로 龜井魯가 말했던 바의 蒹葭子란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전

남옥은 『芥園問槎』라는 필담창화집을 남기고 있는 芥煥에 대해서는 “字는 彦章, 號는 丹丘. 글로 이름이 났다. 곧 井潛이 칭찬한 사람이다. 西京에 거한다.”라 하였고¹¹⁾, 뒤에 混沌社의 리더가 되는 片猷에 대해서는 “號는 北海. 越後人이다. 글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¹²⁾라고 하였다. 이날부터 木村巽齋와 蒹葭堂, 그리고 ‘시와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 일컬어진 蒹葭堂會가 사행단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날의 『일관기』 기록에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木村巽齋와 富維章, 福尙脩, 片猷 등 蒹葭堂會의 주요 멤버를 포함한 19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원증거는 『승사록』에서 이날 필담을 나눈 사람이 80여명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芥煥과 그 아들 元澄, 木孔恭과 合離, 福尙脩, 南川維遷 등의 이름만을 기록하였다. 『일관기』에 없는 合離가 『승사록』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 대신 片猷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 두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날의 필담창화에는 蒹葭堂會의 木村巽齋와 合離, 富維章, 福尙脩, 片猷 등 5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옥과 원증거 공히 蒹葭堂會에 대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필담창화에 임했다가 점차 木村巽齋와 蒹葭堂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듯하다.

『일관기』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날인 1월 23일의 필담창화에는 北山 彰이 계미사행의 大阪 迎接 역할을 맡았던 岸和田藩의 藩主 岡部氏の 부탁을 받고 片猷와 함께 필담창화를 하였는데, 이를 기록한 것이 『鷄壇 嚶鳴』이다.¹³⁾

문: “그대는 이 5인을 아십니까? 和韻詩를 보내고자 하나 보낼 인편을 얻지 못해서일 뿐입니다.”

게서, 239쪽.

11) 남옥, 『일관기』 秋 1월 22일조, “芥煥, 字彦章, 號丹丘, 以文名. 卽井潛所稱也. 居西京”

12) 남옥, 『일관기』 秋 1월 22일조, “片猷, 號北海. 越後人. 有文名”

13) 日本 大阪府 松原市 歴史ウォーク No.75 <詩文や儒学に秀でた橋庵>, <http://www.city.matsubara.osaka.jp/>

답: “木世肅과 合斗南(=合離), 福正修(=福尙脩)는 七僧(=北山皓)과 우의가 좋으나 그 나머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문: “『明史』가 中原에서 과연 전해오는 것이 있습니까? 사라지고자 하는데 그대가 나를 위해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 『三才圖會』 『本草綱目』도 사라지고 싶은데 그 값은 얼마나 됩니까?”

답: “『明史』는 중국 배에 실려 온 것이 혹 있을 수도 있으나 값이 매우 비쌉니다. 『三才圖會』는 日本板은 없고 『本草綱目』은 日本板과 中國板이 있는데, 中國板이 역시 적습니다. 日本板은 정밀한 것과 조잡한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정밀한 것은 80錢쯤 하고 조잡한 것은 50錢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나라에는 판본이 있습니까?”¹⁴⁾

이 필담에서 묻는 사람은 김인겸이고 답하는 사람은 北山彰이다. 北山彰은 남옥등과 필담창화를 하다가 그의 중형제인 北山皓와 함께 병을 이유로 필담에 참여하지 않은 김인겸의 방으로 찾아가 필담을 나누었다. 김인겸이 말한 5인 가운데 세 사람은 蒹葭堂會의 주요 멤버였다. 北山彰이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北山皓와 우의가 좋다’라 한 것으로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北山彰은 木村巽齋를 비롯한 蒹葭堂會 멤버들과 교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필담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김인겸은 『明史』와 『三才圖會』 『本草綱目』처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재미사행단을 포함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長崎에 직접 가서 중국의奇書들을 천여 권씩 사 모으고 있다는 木村巽齋와 그가 주도하는 蒹葭堂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남옥등이 藍島에 머무르고 있던 1763년 12월 9일에 龜井魯

14) 北山彰, 『鷄壇嚶鳴』, “語次出五人和章云-金退石. 君知此五人否? 欲以和章送之, 而不得信便故耳. 答-北山彰. 木世肅合斗南福正修, 與七僧友善, 其他僕不知之. 問-金退石. 明史, 自中原, 果有來傳者否? 欲買去, 君能爲我宜覓否? 其他三才圖會本草綱目, 亦買去, 其價幾? 答-北山彰. 明史華舶所載來, 或有之, 價甚貴. 三才圖會, 無和板. 本草綱目, 桑華俱有, 華板亦少. 和板精粗有二, 精者許八十錢, 粗者五十錢. 貴邦無板本否?”

가 편지를 보내어 자신은 몹시 오고 싶었지만 저지를 당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東遊>라는 시문을 동봉해서 이에 대한 평을 써달라고 청했던 적이 있다. 이에 남옥은 “그가 중유하는 사람은 이른바 獨嘯菴 永富鳳(龜井魯가 海東의 제1인자라고 함:原註)과 僧 大潮, 木弘恭 등이니 모두 大阪에 있다.”¹⁵⁾라 하였다. 그 다음날 龜井魯가 島村皓 秋江과 井土周道 魯垞, 櫛田旭 菊潭 등과 함께 객관에 찾아와 오랫동안 필담창화를 나누게 되면서 龜井魯로부터 다시 大潮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木村巽齋에 대해서는 달리 듣지 못했던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大潮에 대해서는 『일관기』에 언급이 없고, 원중거의 『승사록』 12월 10일조에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

대개 龜井魯는 시를 竺前州의 승려인 元皓에게서 배웠는데 元皓는 字를 月枝라 하고 號를 大潮라고 한다. 大潮는 護園에게서 배웠다. 護園은 성명을 物雙柏—이라고 하고 號를 徂徠라고 하는 자인데 처음으로 明나라의 시를 얻어 이로 인해 문호를 크게 열었다. 獨嘯菴이라는 자가 그 문인이다. 獨嘯는 이름을 永富鳳이라고 한다.¹⁶⁾

이날에 있었던 龜井魯와의 필담에 남옥이 함께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남옥등이 大潮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大阪城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관기』와 『승사록』 공히 蒹葭堂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龜井魯에게서 들은 것이 木村巽齋에 대한 정보의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행단이 1월 13일에 牛窓에 정박해서 이곳의 儒官들과 필담창화를 할 때에도 남옥이 井潛에게 ‘동쪽으로 가면 文學과 學術을 가히 불만한 文士가 있는지’ 묻자, 井潛은 “大阪은 잘 알지 못해 가히 논할 수 없습니다만, 平安에는 岡白駒武欽繇芥

15) 남옥, 『일관기』夏, 12월 9일조, “其所從遊者 所謂獨嘯菴永富鳳 魯以爲海東一人 僧大潮 木弘恭 皆在 大阪”

16)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전게서, 173쪽.

煥·清絢이 있고, 東都에는 岡孝先·松維時·餘承裕·宇惠·井孝德·服元雄이 있습니다.”¹⁷⁾라고 답하였다. 大阪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여전히 木村巽齋와 蒹葭堂會에 대해서는 달리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大阪에 입성한 후로는 龜井魯의 편지를 木村巽齋에게 부탁하여 永富鳳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木村巽齋와 福尙脩가 印章에 매우 뛰어나다 하여 귀로에 도장을 한두 개 새겨서 달라고 할 정도로 이내 친밀해지게 되었다.¹⁸⁾

시는 合離가 남달리 뛰어난 巨擘이었다. 木弘恭은 圖章으로 이름이 났는데 바람에 나부끼듯이 뛰어난 재주가 있었으며 浪華에서 가장 좋은 술집에서 술을 쟁겼다. 또한 長碕島로부터 책을 구매하는데 南京의 책을 매우 많이 샀다. 강가에다 집을 짓고 蒹葭藏이라는 현판을 걸어두었는데 책이 삼만권에 이른다고 한다. 福尙脩는 의원인데 시를 잘했다. …… 木世肅과 合離와 福尙脩와 大江資衡은 우리들을 기쁘게 접대하고자 하여, 賈島가 신라 사신을 접대하면서 배를 부렸다는 옛일로써, 사신들을 충족시켰다는 이름을 구하고자 하여, 三使의 배에 나누어 올랐다가 우리 네 사람을 만나지 못하자 슬프게 돌아갔다. 世肅은 柳營長을 만나게 되어 몇 마디 필담을 하고 또 우리들에게 통해질 것을 스스로 구하였다. 우리들은 이미 龜井魯를 통해 그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¹⁹⁾

『승사록』의 이 기록에는 남옥의 『일관기』에서와 마찬가지로 木村巽齋의 藏書와 致富, 蒹葭堂, 龜井魯를 통해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 등이 언급되어 있다. 合離와 福尙脩가 蒹葭堂을 중심으로 木村巽齋와 교류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후반부의 언급은 새삼스러운 것이 없지만 大江資衡이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과 이들이 조선측 문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三使의 배에 오르는 이벤트성 행사까지 벌였다는 것 등에 대한

17)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전계서, 341쪽.

18)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전계서, 359쪽.

19)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전계서, 240-241쪽.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大江資衡이 조선측 문사들과 필담창화한 것을 묶어 편찬한 책이 『問佩集』인데, 여기에는 大江資衡이 조선측 문사들과 창화한 詩文 97首와 啓言 4篇이 실려 있다. 大江資衡은 1월 24일에 大阪의 객관에서 조엄, 이인배, 김상익 등 三使와 남옥과 성대중, 김인겸, 원중거 등 제술관 및 3書記 외에 李佐國, 南斗昊, 金相玉 등 醫官 및 裨將과 唱和를 하였다. 그리고 江戸에서 돌아오는 길에 京都의 객관에서 남옥과 성대중, 김인겸, 원중거 외에 李彦瑱, 李佐國, 李梅, 趙東觀, 崔壽仁, 金應錫, 洪聖源, 李彦佑, 金有聲, 洪善輔, 劉弘道, 曹學臣, 梁榕 등과 시를 贈答하였다. 조선측 문사 22명과 시문을 주고 받은 셈이다. 그런데, 京都에서의 필담창화시 大江資衡은 성대중에게 시를 주면서 “지난번에 木世肅에게 부탁하여 거친 시를 드렸는데 좋은 화운시를 내려주셨습니다.”²⁰⁾라 하고, 원중거에게 시를 주면서도 “접때에 木世肅에게 부탁하여 비루한 시를 드렸는데 使行이 동쪽으로 간 다음에 삼가 좋은 화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²¹⁾라고 하였다. 또한 남옥은 大江資衡에게 주는 시에 ‘木世肅君에게 맡겨 전달한다’라는 副題를 단 후 “仙家の 玄圃(大江資衡의 號: 필자 주)가 어디 있음을 아노니 / 멀리로 蒹葭堂에게 기대어 뒤늦게 풍류를 보내노라”라는 구절로 尾聯을 썼다.²²⁾ 사행단과 大江資衡과의 筆談唱和에도 木世肅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遙倚蒹葭’라 한 것은 남옥이 아마도 大江資衡을 蒹葭堂會의 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용한 문구일 것이다.

사행단이 大阪을 떠나 江戸로 향하는 배에 오른 1월 27일, 한 使人이

20) 大江資衡, <用前韻呈成龍淵>, 『問佩集』, (『和韓雙鳴集』 卷1, 平安書肆), “向者, 托木世肅, 呈蕪詞, 辱賜高和”

21) 大江資衡, <用前韻呈元玄川>, 앞의 책, “曩者, 托木世肅, 呈鄙詞二章, 文旆東行之後, 欽領高和”

22) 南玉, 『酬大江玄圃 憑木君世肅傳達』, 앞의 책, “仙家玄圃知何在, 遙倚蒹葭送晚風” 이 시는 남옥의 『日觀唱酬』에 副題 없이 그대로 실려 있다.

3경이 지난 한밤중에 사행단이 타고 있는 금루선 밑에까지 찾아와 애써 글씨를 청하여 얻어 갔는데, 그 使人이 나간 후 원중거는 “나는 그가 世肅의 무리인가 의심이 되어 여러 번 물어 보았으나 머리를 흔들었고 또 그의 자취를 바라보니 글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기록하였다.²³⁾ 한밤 중에 뱃전에까지 찾아 애써 글씨를 청하는 사람까지도 ‘世肅의 무리’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으니, 사행단에서는 大阪의 문사들이라 하면 대체로 木村巽齋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4월 4일, 사행단이 귀국길에 京都를 떠나 大阪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탄 후 처음으로 大阪 경내에 들어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것 역시 木村巽齋와 관련된 일이었다.

木弘恭과 福尙脩가 인장을 새겨서 보냈다. 이는 우리가 행차하는 중에 여러 인장으로 하나의 印譜를 만들고 合離가 그 서문을 쓴 것이었다. 가히 그 부지런하고 신의 있음을 알 수 있다. 池球의 「舟中詩」에 차운했다.²⁴⁾

이들이 ‘신의 있다’고 한 것은 사행단이 大阪城에 머무르던 1월 24일에 남옥이 木村巽齋와 福尙脩가 인장에 뛰어나다 하여 ‘歸路에 한두 개 새겨서 달라고 했는데, 이를 어김없이 지키고 또 미리 印譜까지 만들어 둔 것을 말함이다. 남옥이 차운을 한 池球는 후일 混沌社의 乙會의 멤버로 참여한 인물이니, 사행단의 大阪 재입성을 蒹葭堂會員이자 發足을 앞두고 있는 混沌社의 주요 인물들이 영접한 셈이 되었다. 사행단은 그 다음날인 4월 5일에 大阪城에 도착한 후 이내 다시 필담창화를 하였는데, 『일관기』에 기록된 일본측 문사들은 釋竺常, 西翼, 奧田元繼, 衢貞謙, 木

23)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전개서, 252-255쪽.

24) 南玉, 『日觀記』秋 卷8, 4월 4일조, “木弘恭福尙脩, 刻送印章. 仍以我行中, 諸印爲一印譜, 合離爲之序. 可見其勤而有信. 次池球舟中詩.”

弘恭, 河子龍, 合麗王, 福尙脩, 安井屬玉, 瀧恕, 崖弘毅, 鳥宗成, 源文龍, 膝邦, 西田思明, 伴直治, 西熙, 釋水月, 館屯, 菅繼明 등이다. 남옥은 이들에 대해 다시 보는 자가 반이고 처음 보는 자가 반이라고 하였다. 남옥이 다시 보는 자라고 한 자는 奧田元繼, 衢貞謙, 木弘恭, 河子龍, 合麗王, 福尙脩, 安井屬玉, 瀧恕, 鳥宗成 등이다. 이 가운데 木弘恭, 河子龍, 合麗王, 福尙脩, 鳥宗成 등이 蒹葭堂會를 거쳐 混沌社를 주도한 사람들이었다.

계미사행단을 포함해서 조선후기 지식인 가운데 木村巽齋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이덕무이다. 이덕무는 『淸脾錄』에 <蒹葭堂>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木孔恭과 蒹葭堂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木弘恭의 자는 世肅인데, 일본 大阪의 장사치이다. 浪華江 가에 살면서 술장사를 하여 많은 재산을 모은 뒤에는 날마다 佳客들을 초청하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내곤 하는데, 책도 1만여 권이나 購入하였으며 1년 동안 빈객을 접대하는 비용이 수천 금이었으므로 筑縣으로부터 江戸에 이르는 수천 리 사이에서는 어진 선비나 불초한 선비를 막론하고 世肅을 칭찬하였다. 또 商船에 부탁하여 중국 선비들의 시 몇 편을 구해다가 벽에 걸어 놓았다.

浪花江 가에 蒹葭堂을 세웠는데 역새꽃과 갈대숲이 잘 어울리어 파란 빛이 아름답고 바람이 불면 비파(琵琶) 타는 소리가 나며, 안개 속에 끝없이 바라보이는 수평선을 배들이 오가는 경치가 볼 만하다. 世肅은 이곳에서 筑常·淨王·合離·福尙修·葛張·罌元鳳·片猷 등의 무리와 雅集하였다.

갑신년에 龍淵 成大中이 일본에 갔을 적에 세숙에게 雅集圖를 청하니 世肅이 손수 비단에다가 그림을 그려 두루마리를 만들고 두루마리 끝에는 여러 사람이 각각 시 한 수를 썼는데, 그림과 글씨가 모두 逸品이었다. 筑常은 중으로서 典故에 밝고 성품도 침착 독실하며, 淨王은 筑常의 제자인데 사람이 淸楚하여 가까이할 만하며, 合離도 역시 奇才였다. 두루마리 뒤에 列書한 사람은 越后의 片李秩(孝秩의 오기임: 필자 주), 平

安의 那波孝敬, 平安의 合離王, 浪華의 福承明, 浪華의 강(山+山)公翼 상고하건대 강(山+山)자는 罡자와 통용되는 듯하다. 낭화의 葛子琴, 淡海의 중 太眞, 伊勢의 중 藥樹(상고하건대, 이는 아마도 筑常의 호인 듯하다)와 主人 浪花의 木世肅 등이었는데, 지금 葛張의 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 이하 생략 -25)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이 이 글을 쓴 이덕무의 『이목구심서』에도 실려 있다. 글의 말미에 筑常의 序文이 있고 詩軸의 뒤에 서명을 한 인사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은 양자가 동일하나, 『清脾錄』 所載 이 글에서는 葛張의 시만이 남아 있다고 하고 葛張의 시를 기록한 데 비해 『이목구심서』의 해당 글에는 蠹莽 葛張의 시 외에 河曲合離와 映山福尙修, 隔凡 罡元鳳, 芝巖 釋淨王, 木弘恭, 北海片猷 등의 시가 함께 실려 있다. 이 글을 통해 癸未使行 당시 筑常(=太眞)·淨王·合離·福尙修·葛張·罡元鳳·片猷·那波孝敬(=那波師曾)·藥樹(=淨王)·木世肅 등이 葦葭堂會의 주된 會員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덕무는 藥樹가 筑常의 호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였으나, 남옥의 『일관기』 ‘창수제인’에는 淨王의 호가 藥樹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⁶⁾ 이 글 가운데 木孔恭이 술장사를 해서 큰 돈

25)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32 『清脾錄』1, <葦葭堂>, “木弘恭字世肅, 日本大坂賈人也. 家住浪華江上, 賣酒致富. 日招佳客, 賦詩酌酒, 購書三萬卷. 一歲賓客之費數千金, 自筑縣, 至江戶, 數千餘里, 士無賢不肖, 皆稱世肅. 又附商舶, 得中國士子詩數篇, 以揭其壁, 築葦葭堂於浪華江. 芟花荻葉, 蒼然而靡, 瑟然而鳴, 檣篷烟雨, 極望無際. 與竺常, 淨王, 合離, 福尙脩, 葛張, 罡元鳳, 片猷之徒, 作雅集於堂上. 歲甲申, 成龍淵大中之入日本也, 請世肅, 作雅集圖, 世肅手寫橫綃, 爲一軸, 諸君皆記詩于軸尾. 書與畫, 皆蕭閒逸品. 竺常作序, 常浮屠也, 深曉典故, 性又沈篤. 淨王, 常徒也., 清楚可愛. 合離, 亦奇才. 軸後列書, 越後片李秩, 平安那波孝敬, 平安合麗王, 浪華福承明, 浪華강(山+山)案應與罡字通 公翼, 浪華葛子琴, 淡海僧太眞, 伊勢僧藥樹, 案或是竺常之號歟. 主人浪華木世肅, 今只存葛張詩”

26) 筑常이 남옥등과의 필담을 정리하여 엮은 『萍遇錄』을 보면, 5월 4일부터 사흘동안 줄곧 筑常이 藥樹를 대동하고 객관에 들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남옥의 『日觀記』와 원중거의 『승사록』 해당일 기록을 보면 筑常이 淨王과 함께 객관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다.

을 벌었다는 것과 이 돈으로 많은 책을 사들였다는 것, 그리고 浪花江가에 蒹葭堂을 지어놓고 많은 佳客들을 불러들여 詩會를 열고 술을 마시며 즐겼다는 것 등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蒹葭堂에서 어울렸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萍遇錄』의 4월 20일조를 보면, 성대중이 淨王과 함께 객관을 찾아온 筑常에게 “근일에 계속해서 蒹葭堂에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木世肅은 변함없이 평안하며 福尙脩와 舍離 같은 사람들은 날마다 함께 따라다니는지” 묻고 있다.²⁷⁾ 성대중등도 이때쯤에는 이미 蒹葭堂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옥과 원증거가 筑常과 한두 차례 필담을 나눈 후, 성대중이 다시 筑常과 이렇게 말을 주고 받았다.

龍然: “집때에 글로 世肅에게 부탁하여 浪華의 봄날에 새벽이 밝아오는 것과 蒹葭堂에서 우아한 모임을 갖는 것을 그려달라고 하고 스님과 麗王, 承明한테는 혹은 시로써, 혹은 跋로써 써달라고 했는데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世肅은 이미 허락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과연 이미 초안을 잡았는지요, 그리고 스님께서도 원고를 써놓으신 것이 있는지요. 서쪽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얼굴을 보려 해도 만리길이니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하는 것입니다.”

余: “圖畫 한 건은 世肅과 저희들이 이미 명을 받았습시다. 이것은 참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世肅이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으니, 행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반드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²⁸⁾

사행단이 귀로에 대판성에 도착한 4월 5일에, 성대중은 筑常과 함께

27) 筑常, 『萍遇錄』, “二十日. 余與藥樹, 詣公館. …… 龍淵曰: “近日連在蒹葭堂否…… 世肅一向平安, 而承明斗南輩, 日與追隨否?” ……”

28) 筑常, 앞과 같은 곳, 龍淵曰: “向書托世肅, 畫浪華春曉 及蒹堂雅集, 而師及麗王承明輩, 或詩或跋以識, 其未而惠之. 世肅已領諾矣. 果已起草, 而師亦有獲稿否? 西歸之後, 要作萬里顏面, 故如是屢言耳.” 余曰: “圖畫一事, 世肅及納輩, 既領命矣. 此固所願也. 世肅稍試粉本, 及大施之未發, 必當奉呈”

객관을 찾은 木村巽齋와 蒹葭堂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었다. 성대중의 『日本錄』에 기록된 바로는 4월 9일에 韓天壽가 木村巽齋를 통해 편지와 碑榻을 보내었고, 4월 13일에 木村巽齋와 筑常이 편지를 하고 떡을 보내왔다. 『일관기』의 기록으로는 4월 9일에 木村巽齋가 편지와 시를 보내었으므로, 남옥이 편지를 써서 福尙脩와 木村巽齋 등에게 편지를 보냈다. 4월 13일에 木村巽齋가 떡 하나를 보내왔고, 合離와 木村巽齋 등의 편지에 답장을 했다. 그리고 원중거의 『승사록』에도 木村巽齋와 合離가 편지를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을 종합해 보면, 성대중은 4월 9일 혹은 4월 13일에 木村巽齋와 筑常, 合離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이들에게 그림과 시문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대중이 “접때에 글로 世肅에게 부탁하여 浪華의 봄날에 새벽이 밝아오는 것과 蒹葭堂에서 우아한 모임을 갖는 것을 그려달라고 하고 스님과 麗王, 承明한테는 혹은 시로써, 혹은 跋로써 써달라고 했다”고 했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12차례 통신사행에서 조선측 문사가 일본측 문사들에게 시문을 청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일도 이례적이거니와, 특정 그룹의 모임을 지정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조선측 문사들이 蒹葭堂에 모여 詩酒를 즐기는 木村巽齋와 蒹葭堂會에 대해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덕무와 박지원을 포함한 조선지식인들의 木村巽齋와 蒹葭堂會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남옥과 성대중등의 이들 통신사행의 체험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Ⅲ. 癸未使行團과의 筆談唱和와 混沌社

계미사행단이 귀국한 지 2년이 지난 영조42년(1766) 10월, 초량의 倭館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몇 편의 시문이 南玉등에게 전달되었다.

병술년 7월 萬年寺의 승려 周奎(號 羽山) 竺常(號 焦中) 竺常의 徒僧인 淨王(고친 이름은 淨復, 號는 聞中), 浪華의 木弘恭(자는 世肅) 등 네 명이 각각 시를 쓰고 周奎는 都狀書를 지어 對馬州 雨森東의 아들 津을 통하여 草梁의 倭館으로 보내왔다. 10월에 동래의 差役 崔鶴齡이 그것을 한양으로 전달했다. 그것은 그 네 명이 각각 우리 네 명에게 보낸 시로서 이전에는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²⁹⁾

남옥이 말한 것처럼, 일본 문사가 조선측의 통신사행단이 귀국한 지 2년 뒤에 별도로 詩札을 보낸 것은 좀처럼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드문 일이었다. 다만 1682년의 壬戌使行時 野鶴山이라는 사람이 임술사행의 成琬과 洪世泰에게 시찰을 보낸 것이 유일한 사례였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네 명의 일본측 문사들이 조선측의 제술관 및 3서기에게 각각 詩札을 보내온 것이다. 그만큼 癸未使行에서 조선측 문사들과, 일본 특히 關西地域 문사들이 각별한 문학적 교류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귀국길에 오른 계미사행단은 1764년 5월 6일에 大阪城을 떠났지만 역풍으로 인해 배를 띄우지 못하고 兵庫에서 5일을 머물러야 했다. 그런데, 兵庫에 정박한 지 사흘째 되던 5월 9일에 竺常과 淨王, 木弘恭, 福尙修, 周奎 등이 인편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으므로 각각 답장을 써보냈다. 6월 15일에도 竺常과 木弘恭, 周奎, 那波師曾, 周遵, 周宏, 富野義胤, 岡田宜生 등이 시를 보내온 것에 대해 편지를 보냈다. 성대중의 『日本錄』과 원중거의 『乘槎錄』에도 같은 내용의 기록이 실려 있지만, 『일본록』에는 6월 18일에 竺常과 淨王, 木弘恭, 福尙修, 周奎 등외에 那波師曾, 周遵, 周宏, 合離, 富野義胤 등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승사록』에는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에 竺常과 淨王, 木弘恭, 福尙修, 周奎 등외에 那波師曾, 周遵, 周宏, 合離, 富野義胤 등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대중의 『일본록』 6월 18일조에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밤에 단숙이 竺常과 淨王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5월 20일에 보

29)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전계서, 537쪽.

낸 것이었다. 답장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편지나 시문을 주고받은 내력으로 보아, 앞서 인용한 바 있는 詩札은 남옥등이 竺常과 淨王, 木弘恭(=木村巽齋), 福尙修, 周奎 등에게 보낸 답장에 대한 사례로써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래 남옥이 마지막으로 답장을 써보냈던 것은 竺常과 淨王, 木村巽齋, 福尙修, 周奎 등의 다섯 명이었지만 福尙修는 요절했기 때문에 남옥등에게 시를 보낼 즈음에는 이미 시작 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이다.³⁰⁾

남옥이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낸 것도 이들 5인이었는데, 귀국길에 오르는 사행단을 마지막으로 눈물로 작별한 일본측 문사들도 이들이었다.

저녁이 되자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관소 안에서 울며 이별하는 사람은 號가 石屏인 陶國興, 그 다음은 號가 綠疇인 安井屬玉, 號가 東陵인 瀧恕, 號가 蘭陵인 三宅彬이었으니 모두가 泉州의 儒官들이었다. 배가 정박해 있는 곳에 못 미처서는 木世肅과 舍離와 筑常과 淨王의 무리가 길옆에 함께 앉아 있었다. 이에 벗들과 함께 말에서 내려 길에 섰는데 그들이 모두 감히 길옆에 설치한 竹欄의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죽란 밖에 가지런히 서서 손을 잡고 이별을 하였는데 世肅이 황공해 하고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舍離는 하늘을 가리키며 가슴을 어루만졌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 마음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30) 混沌社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賴春水의 『在津紀事』(『春水遺稿別錄』卷1)에 “福承明早死, 諸友會九島禪院, 賦詩弔之, 時余賦五言排律十六韻”이라는 구절이 있다. 賴春水가 混沌社에 합류한 것이 1766년이었으니(富士川英郎, <解題>, 『詩集 日本漢詩 第十卷』, 汲古書院, 1986), 1766년 7월 경에는 福承明이 이미 사망했거나 시작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福承明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은 모두 癸未使行時 남옥과 시문창수를 했던 사람들로, 남옥의 『일관기』 제4 범례 ‘唱酬諸人’에 실려 있다. 周奎와 竺常, 木弘恭은 攝津州大坂城條에, 淨王은 山城州西京條에 실려 있는데, 周奎는 號가 羽山으로 加番長老 承瞻의 徒僧이라 하였으며 竺常은 字가 太眞이요 호는 焦中이라 하였다. 그리고 淨王은 號가 藥樹이고 竺常의 徒僧이라고 하였다. 木弘恭은 字가 世肅, 號는 蒹葭堂이라 하였다. 淨王에 대한 언급만이 다를 뿐, ‘唱酬諸人’과 사행기록의 後記에 해당되는 인용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는 셈이다. 네 명 모두가 關西지역의 문사이며 木弘恭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오열을 하였는데 눈물이 얼굴을 뒤덮었다. 筑常은 연달아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어 옷깃을 적시었으니 모습과 행동이 더욱 가관이었다.³¹⁾

양국의 문사들이 작별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 기록에 따르면, 大阪에서 사행단을 송별하는 일본측 문사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陶國興, 安井屬玉, 瀧恕, 三宅彬 등의 泉州의 儒官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木村巽齋와 合離와 筑常과 淨王 등의 蒹葭堂會의 멤버들이다. 이별을 안타까와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木村巽齋와 合離와 筑常 등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슬피하는 木村巽齋 등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한 원중거와 달리, 남옥은 “우리들은 곧바로 나루로 향했다. 길 왼편에 竺常, 淨王과 合離, 木弘恭, 片猷, 釋 德雲이 모여 앉아 전송하는 것이 보였다.”고 기록하였고³²⁾, 성대중은 “木弘恭, 合離, 片猷, 竺常, 淨王 등은 길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말에서 내려 악수하고는 헤어졌다.”³³⁾고 간략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승사록』의 기록에는 片猷가 없는 데 비해, 『일관기』와 『일본록』의 기록에는 片猷와 釋 德雲이 들어있고 또 ‘모여앉아’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筑常이 쓴 『萍遇錄』에도 “나는 孝秩, 麗王, 世肅, 藥樹 등과 堺筋街로 가서 상점 하나를 빌려 행렬을 기다렸다”³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의 『일본록』 기록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남옥이 ‘모여앉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것은 그의 눈에 이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처럼 미리 약속을 해서 상점까지 빌려놓고는 행렬을 기다렸던 것이다. 사행단이 출발을 하루 앞둔 5월 5일, 筑常이 木世肅이 그림을 그리고 孝秩, 麗王, 承明, 子琴, 公翼, 藥樹主人, 世肅 등 7인이 題詩를 쓴 후 그 끝

31)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전개서, 465-466쪽.

32)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전개서, 495쪽.

33) 성대중 지음 홍학회 옮김, 전개서, 103쪽.

34) 筑常, 『萍遇錄』, 5월 6일조, “余, 與孝秩麗王世肅藥樹, 去堺筋街, 借一店上, 以候 鹵簿”

에 筑常 자신이 序文을 쓴 <蒹葭雅集圖卷>과 <傳藏記文>을 淨王을 시켜 가져와서는 필담을 주고받았다. 이때, 남옥을 비롯한 조선측 문사들이 木村巽齋의 안부를 묻고 木村巽齋와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므로, 筑常은 “반드시 木世肅등과 약속을 해서 길가에서 기다렸다가 諸公과 한번 손을 잡고 작별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筑常이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하자, 김인겸이 “다음날 닭이 울 때 떠나려고 하는데 世肅이 길가에서 기다리기가 어려울 듯하니 스님께서 많이 주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김인겸과 筑常이 몇 차례의 필담을 통해 재차 확인을 하였다. 김인겸이 다시 “우리들 네 사람은 각기 세 척의 배에 있을 것이니 회동하기가 어려울 듯하다”고 걱정을 하자, 筑常이 “그러면 반드시 길가에서 한번 악수를 해야겠다”고 하였다. 이때 柳營將이 와서 이 약속을 듣고는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려고 하므로 筑常이 종이 위에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그려보였다.³⁵⁾

『乘槎錄』과 『萍遇錄』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癸未使行時 한일 양국간 문사들의 교류, 특히 關西地域 文士들과의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도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 문사간의 교류에 촉매제의 역할을 한 것이 木村巽齋가 주도한 蒹葭堂會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재확인시켜준 것이 1766년 10월에 남옥등에게 전달된 그 詩札이었다. 筑常등 4인의 詩札이 남옥등에게 전달된 것은 1766년 10월이었지만, 이 詩札을 쓴 것은 1766년 7월이었다. 그렇다고 남옥등이 1764년 6월 이후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닐 터인데, 남옥등이 大阪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뒤에 무슨 이유로, 그리고 무엇을 계기로 筑常과 木世肅 등이 詩札을 보내왔던 것일까? 사행단이 大阪을 떠나 귀국선에 오른 5월 6일자 『일본록』의 다음 기록은 이 의문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듯하다.

35) 筑常, 『萍遇錄』 5월 5일조 筆談 要約.

禪僧 筑常은 호를 焦中이라고 한다. - 중략 - (筑常은) 대마도 승려의 직책으로 동래로 나와 나를 만나기를 기약하였으나 내가 사양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 往生하고 싶다며 이별에 임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니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 좋아하기가 이와 같았다. 사람이 침착하고 묵직하며 그릇이 그 재주에 걸맞으니 아마도 일본 땅의 제일가는 인재라 할 것이다. 淨王 또한 奇才였다.

弘恭의 자는 世肅인데 부유하며 호협기가 있어 빈객들을 통틀어 서쪽으로 筑州에서부터 동쪽으로 江戸에 이르기까지 世肅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강가에 蒹葭堂을 짓고 책 5만여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의 문도 9명과 고아한 모임을 갖고는 그림을 그려 나에게 부쳐 주었다. 世肅의 그림과 筑常의 序, 合離의 시가 최고였다. 福尚脩 또한 모임 중의 인재로서 世肅과 더불어 건줄 만한데, 둘 다 장사일로 집안을 일으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이러한 사실을 헐뜯기도 하였다.³⁶⁾

이 글에서 말하는 ‘대마도 승려의 직책’이란 아마도 以酏庵의 주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筑常은 실제로 1781년에 以酏庵의 61代 주지로 부임하여 2년간 근무하였다.³⁷⁾ 以酏庵의 주지는 京都의 天龍寺·相國寺·建仁寺·東福寺의 碩學들이 윤번제로 부임을 하였고, 筑常이 당시 相國寺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대마도 승려의 직책’을 말한 것인 듯하다. 성대중이 말한 ‘그의 문도 9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蒹葭堂雅集圖>에 題詩를 한 孝秩, 麗王, 承明, 子琴, 公翼, 藥樹主人 등 6인과 序文을 한 筑常이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蒹葭堂會가 발족된 것은 木村巽齋가 23세때인 1758년의 일이었으며, 발족 당시의 멤버는 細合半齋(=合離) 외에 20인이었다고 한다.³⁸⁾ 蒹葭堂會가 발족된 지 3년째인 1761년에 蒹葭堂에서는 최초의 사업으로 『昨非集』을 출간하는데, 이 책이 곧 筑常의 시집이다. 筑常이 <蒹葭堂雅集圖>에 대한 서문

36) 성대중 지음 홍학희 옮김, 전개서 권1. 5월 6일조. 104-105쪽.

37) 田中健夫, 「對馬以酏庵の研究」, 『前近代の國際交流と外交文書』, 吉川弘文館, 1996. 183쪽 참조.

38) 中村眞一郎, 『木村蒹葭堂のサロン』, 新潮社, 2000. 716쪽.

을 쓰게 된 데에는 것은 이러한 사연도 작용했을 것이다.

계미사행단이 大阪을 떠난 뒤 木村巽齋등이 남옥등에게 詩札을 보낸 1766년 7월 사이에 ‘蒹葭堂雅集’의 주체인 木村巽齋와 그 ‘문도’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混沌社의 創立이다. 混沌社는 混沌詩社라고도 하였으며, 1764년 5월경에 창립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1765년 9월에 창립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1765년 9월에 창립되었다고 하는 견해는 『混沌社吟稿』에 실려 있는 平澤旭山의 <混沌社吟稿序引>, 山震의 <同乙會吟稿序>, 片山北海의 <混沌詩社說>, 田中鳴門의 <混沌說>, 葛子琴의 <混沌社歌奉贈片北海先生> 등의 내용에 따라 제기한 것이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混沌社의 甲會가 1765년 9월 16일에 열렸고 9월 26일에 乙會가 열렸으니, 混沌社의 처음 모임이 있었던 1765년 9월을 창립시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³⁹⁾ 이와 달리, 久保三千雄은 1764년 5월에 계미사행단에 <蒹葭堂雅集圖>를 증정할 무렵에 混沌社가 창립되었다고 본다. 久保三千雄은 『木村蒹葭堂のサロン』에 실린 <木村蒹葭堂年譜>의 1764년조에서 “朝鮮使節 일행의 書記였던 成大中에게 <蒹葭堂雅集圖>를 증정하였다. 이 무렵, 片山北海에 의해 混沌詩社가 창립되어 世肅이 참가했다. 함께 한 사람으로는 葛子琴, 篠崎三島등이 있다.”고 하고 1765년조에서는 “蒹葭堂會는 佐々木魯庵의 제창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체로 混沌社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⁴⁰⁾

混沌社의 멤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769년에 鳥山崧岳이 편찬한 『浪華名流花月吟』에 작품을 실은 12명(葛子琴, 曾根原魯卿, 西村古愚, 鳥山鳳池, 石水東陽, 田雪航, 田中鳴門, 小山養快, 岡田南山, 賴春水, 中村文昌, 鳥山崧岳)을 들기도 하고, 창립 당시의 詩會를 기록한 『混沌社吟稿』에 실린 甲會의 구성원인 片猷.佐々木魯庵.田中鳴門.篠崎三島.中正竹山.鳥山崧岳.平澤旭山.木孔恭.葛子琴.河子龍.合離 등에다 뒤늦게

39) 多治比郁夫, 「平澤郁山と混沌詩社の成立前後」, 『大阪府立圖書館紀要』7, 1971. 참조.

40) 中村眞一郎의 전게서, 2000. 717쪽.

참여한 賴春水.尾藤二洲.古賀精里 등을 합하여 混沌社의 구성원으로 보기도 한다.⁴¹⁾ 多治比郁夫는 『混沌社吟稿』을 중심으로 해서 甲會에는 福原丹安.阪東道齋.田中鳴門.富有明.清玄道.篠崎三島.佐々木魯庵.福原承明.木村葦葎堂.平澤旭山.葛子琴.岡公翼.吉田謙齋.岡田南山 등이, 乙會에는 早迪.橫山昇.本城和光.井震.宇猛.左房.木煥.川恭.田鵬.高思齋.東獻.小西正平.池球.碓三省.寺壽觀.林庸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甲會의 吉田謙齋는 1766년 3월에, 乙會의 碓三省이 1766년 7월에 탈퇴한 대신 1766년 초에 鳥山崧岳이 합류하고, 같은 해 3월에는 賴春水가, 5월에는 北山彰이 합류하였다고 하였다. 乙會는 모두 混沌社의 맹주인 片猷의 門人이었다고 한다.⁴²⁾ 그래서인지, 混沌社에 대한 논의는 주로 甲會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賴惟勤은 몇 차례에 걸쳐 시리즈 형식으로 混沌社의 交遊에 대해 고증을 하였는데⁴³⁾, 그 「初篇」에서 混沌社의 회원을 열거하면서 萱野錢塘, 井阪松石, 賴春風, 杏坪 등도 混沌社 會員에 포함시켰다.

뒤늦게 混沌社에 합류한 賴春水는 混沌社의 운영방식은 물론 混沌社 멤버들의 일화와 성격, 가정문제 등까지 混沌社와 관련된 이런저런 기억들을 정리하여 『在津記事』와 『師友誌』를 펴냈다. 그런데 『在津記事』의 5번째조에 混沌社 멤버의 이름이 망라되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거론된 混沌社의 멤버는 鳥宗成世章, 田章子明, 合離麗王, 篠應道安道, 左鳳子岳, 清履玄道, 福尙脩承明, 富維章有明, 萱來章君譽, 木孔恭世肅, 岡元鳳公翼, 葛張子琴, 隱岐秀明子遠, 平九齡壽王, 西村直孟清, 河子龍伯潛, 岡田豹君章, 井坂廣正雲卿, 小山儀伯鳳 등이다.

41) 『日本古典文學大辭典』(岩波書店, 1983)의 ‘混沌社’ 및 ‘浪華名流花月吟’조 참조.

42) 多治比郁夫의 전계논문.

43) 賴惟勤,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考證 初篇」,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5, お茶の水女子大學, 1962.,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續篇-上」,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6, お茶の水女子大學, 1963.,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續篇-中」,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7, お茶の水女子大學, 1964.,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續篇-下」,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8, お茶の水女子大學, 1965.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混沌社의 會員은 多治比郁夫가 작성한 리스트를 기준으로 삼아, 福原丹安. 阪東道齋. 田中鳴門. 富有明. 清玄道. 篠崎三島. 佐々木魯庵. 福原承明. 木村蒹葭堂. 平澤旭山. 葛子琴. 岡公翼. 岡田南山 등과 후에 곧 이어 참여한 鳥山崧岳. 賴春水. 北山彰. 尾藤二洲. 古賀精里. 北山皓 등의 甲會와 早迪. 横山昇. 本城和光. 井震. 宇猛. 左房. 木煥. 川恭. 田鵬. 高思齋. 東獻. 小西正平. 池球. 寺壽觀. 林庸 등의 乙會 회원을 합한 것으로 보면 될 듯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甲會에 해당되는 멤버들은 거의 사행단과의 필담창화에 참여를 했고, 乙會에 해당되는 멤버들은 左房과 池球 외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池球의 경우에도 歸路에 大阪으로 향하는 선상에서 木村巽齋와 福尙脩가 새긴 인장과 이들 인장에 合離가 서문을 써서 만든 印譜를 전해 받은 후 ‘池球의 「舟中詩」에 차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池球를 통해 인장과 인보를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乙會 회원들은 계미사행 당시에는 사행단과 필담창화를 할 위치나 수준이 아니어서 필담창화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록 훗날 混沌社의 회원이 된 이들은 계미사행단과의 필담창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최천종 피살사건으로 인해 객관의 출입이 통제된 이후에는 사행단과의 필담창화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다. 『일관기』와 『승사록』 『일본록』 및 기타 필담창화집에 실린 자료를 바탕으로, 사행단이 大阪 객관에 머무르는 동안 계미사행단과 후일에 混沌社員이 된 사람들이 필담창화를 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월 22일: 木世肅, 富維章, 福尙脩, 片猷
- 1월 23일: 鳥宗成, 西邨直, 北山彰, 北山皓
- 1월 24일: 岡豹, 合離, 北山彰, 北山皓
- 1월 25일: 木世肅, 合離, 福尙脩, 左房
- 1월 26일: 富維章

- 4월 4일 : 池球
- 4월 5일 : 木世肅, 河子龍, 合麗, 福尙脩, 鳥宗成
- 4월 6일 : 萱來章
- 4월 9일 : 木世肅, 合離
- 4월 10일: 福尙脩, 木世肅
- 4월 13일: 木世肅, 合離
- 4월 15일: 合離, 木世肅
- 5월 4일 : 木世肅
- 5월 5일 : 合離, 木世肅, 福尙脩
- 5월 6일 : 木世肅, 合離, 福尙脩, 片猷

이들 가운데 사행단과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필담창화를 한 사람들은 木世肅과 合離, 福尙脩, 片猷 등이다. 富維章의 경우에는 大阪에 西京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을 때에 ‘공무로 배에 있었다’고 하는데, 富維章이 맡은 공무가 무엇인지는 않으나 사행단이 大阪에 도착한 당일과 西京으로 향하는 도중에 각각 필담창화를 하였다. 이들 외에 훗날의 混沌社 멤버로서 사행단과 필담창화를 한 사람들은 鳥宗成, 西邨直, 岡豹, 河子龍, 萱來章, 北山彰, 北山皓 등이다. 『在津記事』에 열거된 混沌社 20명 가운데(北山彰, 北山皓 불포함) 10명이 사행단과의 필담창화에 참여했던 것이다.

多治比郁夫는 鳥山崧岳이 편찬한 『垂葭詩稿』에 의거해서, 1766년 정월의 混沌社 모임에 鳥山崧岳이 처음으로 참여했고, 3월에는 賴春水가 참여했으며, 5월 19일에는 崧岳의 초청에 따라 北山彰도 출석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날 混沌社의 맹주인 片山北海와 北山彰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고 했다.⁴⁴⁾ 1764년 1월 24일에 있었던 필담에서 北山彰은 ‘이 5명을 아는가’하고 묻는 김인겸에게 ‘木世肅과 合離, 福尙脩는 北山皓와 우의가 좋다’라는 말로써 자신은 이들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애둘러 표시했다. 나머지 두사람 중에 片山北海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

44) 多治比郁夫의 전계논문.

으나, 木村巽齋와 合離를 몰랐던 것으로 보아 北山彰은 片山北海 역시 잘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한 北山彰을 鳥山崧岳이 초청해서 混沌社에 참여시킨 것이다.

鳥山崧岳은 1764년 1월 23일에 사행단과의 필담창화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西村直과 北山彰, 北山皓 역시 필담창화에 참여하였다. 원래는 같은 곳에서 필담창화를 하였으나 김인겸이 청병을 하고 필담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北山彰과 北山皓만 따로 나와 對馬島 記室을 통해 김인겸을 찾아가 날짜를 넘겨가며 필담창화를 했던 것이다.

시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욱 많이 몰려 들었다. 그러나 방이 비좁아서 다 들일 수가 없으므로 두 벼를 데리고 書童을 시켜서 문방구를 들고 따라오게 해서 대청에 나가 앉았다. 먹을 펼쳐 놓자 어지럽게 뒤엎켜 나오는 것이 마치 벌떼나 개미떼가 모이는 것 같았고 번갈아서 종이를 서로 던지는 것이 마치 과거시험장에서 試券을 던지는 것 같았다. 두루 필어를 하노라니 마음과 눈이 다 어질어질했다.⁴⁵⁾

이는 통신사행시 일본인들이 우리측 문사들에게 시문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흔히 인용되는 묘사인데, 이 어지러운 자리에 57세인 鳥山崧岳과 그와 같은 연배의 西村直⁴⁶⁾이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 필담창화를 하였으니, 이들이 느꼈을 당혹감도 상당했을 것이다. 다음은 같은 날 남옥과 함께 일본인과의 필담창화에 응했던 원중거의 『승사록』 기록이다.

대개 저들은 오직 화답하는 시를 얻는 것을 행운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무릇 한 마디라도 서로 미치는 것이 있으면 번번이 얼굴빛을 움직이며 서로 기뻐하며 좌중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이미 화답하는 문장을 얻

45)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전계서, 357쪽.

46) 賴春水의 전계서. 「西村孟淸」조에 “西村孟淸沒, 崧岳以知舊, 故爲經紀葬事.”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西村直은 鳥山崧岳과 같은 연배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도 물러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더욱 기뻐하며 떠들썩하게 날뛰며 좋아하였다. 이에 내가 얼굴빛을 엄하게 하고 화를 내면서 종이 한 장을 취해 큰 글씨로, “두 나라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이처럼 무례하면 안됩니다.”라고 써서 돌려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손을 휘두르며 그치게 하고는 앞으로 와서 글씨를 써서 답하기를,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큰 나라의 衣冠을 보고 여러 선생님들을 또 만나뵈게 되니 모두에게 기쁘이고 영광스러운 행운입니다. 이제 선생의 질책을 입었으니 더욱이 전에 없던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뒤로는 기뻐하며 떠들썩하는 것이 조금 그치었다.⁴⁷⁾

耳順의 나이가 된 사람이 젊은이들과 뒤섞여 이국 사신으로부터 ‘무례하면 안됩니다’라는 질책을 받아야 했던 鳥山崧岳의 심사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승사록』에서는 손을 휘두르며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西村直 아니면 鳥山崧岳이었을 것이다. 이들에 비해 비교적 젊다고 하나, 北山皓는 43세였고 北山彰은 33세였다. 이들이 본래 알던 사이였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연로한 西村直과 鳥山崧岳을 그러한 이수라장에 그냥 놔두고 北山皓와 北山彰 둘이서만 김인검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같은 날에 필담창화를 했는데도, 北山彰과 北山皓의 필담창화는 『鷄壇嘍鳴』으로, 鳥山崧岳과 西村直의 필담창화는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龍世華등의 필담창화와 함께 『和韓雙鳴集』卷2에 실려 있는 것을 보더라도 北山彰과 北山皓가 이전부터 鳥山崧岳과 왕래가 있던 사이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西村直과 鳥山崧岳은 계미사행단과의 필담창화를 계기로 北山彰과 긴밀한 관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蕪葭堂會라는 틀 안에서 어울리던 片山北海와 木世肅, 合離, 福尙脩 등도 계미사행단과의 필담창화를 계기로 더욱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들의 문

47)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전게서. 239-240쪽.

학적 역량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만나는 접점이 곧 混沌社의 창립인 것이다.

鳥山崧岳과 北山彰이 大阪의 객관에서 필담창화를 한지 2년이 지난 1766년 1월에 鳥山崧岳이 混沌社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4개월이 지난 1766년 5월에 鳥山崧岳의 초대에 따라 北山彰이 混沌社에 참여하면서 混沌社가 융성하게 된다. 蒹葭堂會가 발전적으로 해산하여 混沌社에 합류한 지 1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이들과 필담창화를 나누던 조선측 문사들이 大阪을 떠난 지 2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木世肅이 筑常과 淨王, 周奎와 함께 詩札을 써서 남옥등에게 보낸 것이다.

筑常 자신이 그로부터 15년 뒤에 以酌庵의 주지로 부임하기도 하지만, 以酌庵의 주지를 번갈아 맡아온 京都四山 중의 하나인 相國寺에 적을 두고 있었으니 편지를 보내는 것이야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뱃길로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의 승려들과 문사가, 그것도 헤어지지 2년이나 되는 이국땅의 문사들을 위해 별도로 詩卷을 만들어 보낸다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混沌社의 창립과 융성은 충분히 그러한 계기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다.

賴惟勤은 混沌社의 盟主인 片山北海와 그의 混沌社 동지들인 葛子琴, 岡白洲, 田中鳴門, 細合斗南, 鳥山崧岳이 徂徠 문하의 管甘谷에서 배웠고 中井竹山 형제를 비롯한 여러 학자와 깊게 교유한 것으로 보아 混沌社가 학문적으로 일정한 계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⁴⁸⁾ 하지만 片山北海는 管甘谷보다는 宇野明霞의 문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宇野明霞는 徂徠學에서 벗어나 일가를 이루었다는⁴⁹⁾ 점을 감안할 때, 混沌社는 학문적으로 程朱學을 존숭하고 徂徠學에 비판적이었던 關西地域의 학문적 기류를 주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뒤늦게 混沌社에 합류하여 후일 寬政의 學制改革을 이끈 柴野栗山, 尾藤二洲, 古賀精里가 모두 片山北海

48) 賴惟勤의 전계논문 「續篇中」 참조.

49) 앞과 같은 곳.

의 제자이고, 片山北海, 木孔恭 등과 함께 癸未使行使와 줄곧 筆談창화를 했던 那波師曾 역시 徂徠學을 버리고 朱子學을 신봉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那波師曾과 南玉의 동류의식은 서로가 程朱學을 존송한다는 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⁵⁰⁾ 南玉과 那波師曾 뿐 아니라 癸未使行團과 蒹葭堂會가 서로 동류의식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다.

豬口篤志는 江戸時代의 關西의 詩壇을 이끈 宇野明霞의 門下에 龍草廬와 片山北海, 釋大典(=筑常) 등이 있으며⁵¹⁾, 龍草廬의 제자로는 大江玄圃, 片山北海의 제자로는 柴野栗山, 尾藤二洲, 古賀精里, 賴春水 등이 있다고 하였다. 龍草廬의 제자라는 大江玄圃는 木村巽齋와 合離, 福尙脩 등과 함께 賈島가 신라 사신을 접대하면서 배를 부렸다는 옛일로써, 사신들을 충족시켰다는 이름을 구하고자 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片山北海와 筑常, 그리고 木村巽齋가 서로 사상적 경향이나 학맥 등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木村巽齋와 合離, 福尙脩 등의 蒹葭堂會와 龍草廬의 제자인 大江玄圃가 서로 허물없이 교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고리인 片山北海가 徂徠學을 버리고 朱子學을 신봉하였고, 中井竹山과 柴野栗山, 尾藤二洲, 古賀精里, 賴春水 등은 처음부터 程朱學을 신봉하였다고 한다면, 混沌社의 전체적인 학문적 분위기는 反徂徠學的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크게 보면 宇野明霞의 문도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었고, 이 때문에 宇野明霞의 수제자격인 片山北海를 중심으로 混沌社라는 새로운 시단을 모색했을 가능성도 있다.

那波師曾이 徂徠學의 기반인 漢魏의 古學을 버리고 오로지 성리학을 제창하게 되고 그의 문인인 西山拙齋가 徂徠學으로부터 朱子學으로 전향하게 된 것은 통신사 일행과의 접촉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⁵²⁾ 계미사행단과 蒹葭堂會의 접촉이 反徂徠學的인 大阪 주변의 문인

50) 拙稿, 「癸未使行時の 南玉과 那波師曾」, 『한국문학논총』40집, 한국문화회, 2005. 참조.

51) 豬口篤志, 『日本漢文學史』, 角川書店, 1984., 305-310쪽.

들을 결집시켜 결과적으로 混沌社라는 새로운 詩社의 창립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蕪葭堂會의 주축이 된 인사들이 程朱學을 존송해왔기 때문에 역시 程朱學을 존송하는 계미사행단과의 접촉에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계미사행단과의 접촉이 徂徠學을 비판하고 程朱學을 존송하는 경향을 강화시킨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계미사행단과의 접촉이 混沌社의 創立과 混沌社의 학문적 경향이 程朱學 尊崇 일변도로 나아가게 된 계기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계미사행시의 필담창화를 통한 한일 양국 문사간의 교류가 근대 이전의 關西地域, 나아가 日本의 대표적인 문화서클이었던 混沌社의 창립과 융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추정의 근거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에 앞서, 混沌社의 모체가 된 蕪葭堂會와 이를 주도한 木村巽齋와 계미사행단을 포함한 조선지식인들의 관심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大阪의 客館에서 필담창화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木村巽齋에 대해 계미사행단의 문사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대형장서가에 대한 호사적 취미의 연장일 수도 있다. 나아가 계층과 빈부를 뛰어넘어 詩酒로써 함께 어우러지고, 또 술장사로 돈을 벌어서 詩壇 이상의 문화살롱을 이끌고 있는 木村巽齋라는 한 개인과 木村巽齋의 그런 개방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日本社會에 대한 부러움의 우회적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성대중은 浪華의 밝아오는

52) 衣笠安喜, 『近世儒學思想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部, 東京, 1976) 19쪽, 이혜순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새벽과 蒹葭堂에서 우아하게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또 이에 대한 시와 발문을 청했던 것이다. 大阪의 客館에서 필담창화를 하기에 앞서 藍島에서 그곳의 문사들과 필담창화를 하면서 龜井魯의 『東遊集』을 통해 木村巽齋와 合離 등의 존재를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계미사행기록과 관련 필담창화집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大阪 客館에서의 대면과 필담창화 이후에 비로소 木村巽齋와 蒹葭堂會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에 따라 특별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大阪 客館에서 계미사행의 문사들과 가장 빈번하게 필담창화를 나누고 문학적 교류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일본측 문사들은 木村巽齋와 片山北海, 合離, 福尙脩, 那波師曾, 筑常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那波師曾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蒹葭堂會의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癸未使行의 귀국직후에 결성된 混沌社를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混沌社가 결성된 이후에 추가로 混沌社에 참여한 鳥宗成과 鳥宗成의 권유로 混沌社에 합류한 北山彰은 같은 날에 大阪 客館에서 계미사행의 문사들과 필담을 나누었다. 北山彰은 大阪 客館에서의 필담창화 이전까지만 해도 鳥宗成은 물론 木村巽齋와 合離, 福尙脩 등과 교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계미사행이 귀국한 후에 鳥宗成의 권유로 混沌社에 합류했다는 것은 계미사행에서의 필담창화가 混沌社의 결성은 물론 그 이후의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예로 보고 이러한 추론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Ⅲ장의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1764년 5월에 계미사행을 눈물로 보낸 筑常과 木世肅 등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766년 5월 南玉 등에게 ‘전례없이’ 詩札을 보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詩札이 混沌社의 성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필담창화 및 기타 전고를 찾아 계미사행에서의 양국문사간 필담창화와 혼돈사의 창립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Ⅲ장의 말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미사행의 문사들과 후일 混沌社의

모체가 된 蒹葭堂會의 멤버, 蒹葭堂會의 멤버는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필담창화에 참여한 北山彰와 柴野栗山, 필담창화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混沌社와 인연을 맺은 中井竹山과 岡白洲, 田中鳴門, 尾藤二洲, 古賀精里 등은 모두 학문적으로 程朱學을 존송하고 徂徠學에 비판적이었는데 공통점이 있다. 더구나 계미사행시 남옥등과의 필담창화와 교유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那波師曾은 물론 柴野栗山, 尾藤二洲, 古賀精里 등이 모두 程朱學을 존송하고 徂徠學에 비판적이었고, 이들의 주도에 의해 일본의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寬政의 學制改革’이 이루어졌다. 요컨대, 계미사행시 필담창화를 통한 양국 문사간의 교유가 당시의 관서지역 문화계는 물론 근세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문학 및 사상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豬口篤志가 밝힌 바와 같이, 계미사행시 필담창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龍草廬와 片山北海, 筑常 등은 江戸時代의 關西지역 詩壇을 이끈 宇野明霞의 문하생들이며, 寬政의 학제개혁을 주도한 柴野栗山, 尾藤二洲, 古賀精里 등과 뒤늦게 混沌社에 합류한 賴春水는 片山北海의 제자였다. 이렇듯이 片山北海와 筑常, 그리고 木村巽齋가 서로 사상적 경향이나 학맥 등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木村巽齋와 合離, 福尙脩 등의 蒹葭堂會와 筑常의 제자인 大江玄圃가 서로 허물없이 교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모두 宇野明霞의 문도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 때문에 宇野明霞의 수제자격인 片山北海를 중심으로 混沌社라는 새로운 시단을 모색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蒹葭堂會의 주축이 된 인사들이 程朱學을 존송해왔기 때문에 역시 程朱學을 존송하는 계미사행단과의 접촉에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계미사행단과의 접촉이 徂徠學을 비판하고 程朱學을 존송하는 경향을 강화시킨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인 동시에 앞으로 밝혀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김인겸, 『일동장유가』, 대제각, 1987
- 南玉, 『日觀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南玉, 『日觀詩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南玉, 『日觀唱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朴趾源, 『熱河日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成大中, 『日本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 元中學, 『乘槎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 元中學, 『和國志』,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 李德懋, 국역 『靑莊館全書』, 민족문화추진회, 1967
-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日觀記-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 2006.
- 성대중 지음, 홍학회 옮김, 『日本錄-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 소명, 2006.
-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乘槎錄-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 2006.
- 원중거 지음, 박재금 옮김, 『和國志-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 2006.
- 趙曦, 국역 『해행총재』VII, 『海槎日記』, 민족문화추진회, 1976.
- 芥丹邱, 『芥園問槎』, 京都大 圖書館 소장본
- 古賀精里, 『精里集抄』, 『詩集 日本漢詩』7, 汲古書院 영인본
- 古賀精里, 『對禮餘藻』, 京都大 圖書館 소장본
- 那波師曾, 『東遊篇』, 日本國會圖書館 소장본
- 南宮岳, 『講餘獨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賴春水, 『在津記事』, 『詩集 日本漢詩』10, 汲古書院 영인본
賴春水, 『師友錄』, 『詩集 日本漢詩』10, 汲古書院 영인본
大江資衡, 『問佩集』, 京都大 圖書館 소장본
尾藤二洲, 『靜寄軒集』, 『詩集 日本漢詩』7, 汲古書院 영인본
北山彰, 『鷄壇嚶鳴』, 京都大 圖書館 소장본
柴野栗山, 『栗山堂詩集』, 『詩集 日本漢詩』7, 汲古書院 영인본
辛基秀, 仲尾宏, 『大系朝鮮通信使』VI, VII, 明石書店, 1997
龍草廬, 『草廬集』, 『詩集 日本漢詩』6, 汲古書院 영인본
井土周道, 『竺前藍島唱和』, 京都大 圖書館 소장본
蕉中, 『北禪詩草』, 『詩集 日本漢詩』6, 汲古書院 영인본
蕉中, 『萍遇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退甫道人, 『韓客人相筆話』,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 논문 및 단행본

- 강동엽, 「18세기 동아시아 문학교류의 연구」, 『淵民學誌』4, 연민학회, 1996.
- 강순애외,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 김보경, 「남옥의 일관기 연구」, 『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김성진, 「南玉의 生涯와 日本에서의 筆談唱和」, 『한국한문학연구』19, 한국한문학회, 1996.
- 김성진, 「癸未使行時의 南玉과 那波師曾」, 『한국문학논총』40집, 한국문학학회, 2005.
- 신로사, 「元重舉의 『和國志』에 關한 研究: 그의 日本認識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 안대수, 「1763년 癸未使行에 關하여: 『金令記』와 『寶曆物語』의 비교를

-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 이동찬, 「癸未 通信使行 記錄의 장르 선택-『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18, 한국문학회, 1996.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출판부, 1996.
- 정민,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32, 한국한문학회, 2003.
-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과 日本近世 古學의 比較研究 試論-교류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8, 한일관계사학회, 1998.
- 한국18세기학회,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 태학사, 2007.
- 한태문,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1995.
- 한태문,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국제어문』27, 국제어문학회, 2003.
- 多治比郁夫, 「平澤郁山と混沌詩社の成立前後」, 『大阪府立圖書館紀要』7, 1971.
- 賴惟勤,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考證 初篇」,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5, お茶の水女子大學, 1962.
- 賴惟勤,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續篇-上」,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6, お茶の水女子大學, 1963.
- 賴惟勤,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續篇-中」,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7, お茶の水女子大學, 1964.
- 賴惟勤,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續篇-下」,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8, お茶の水女子大學, 1965.
- 衣笠安喜, 『近世儒學思想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部, 1976.
- 李元植, 「明和度(1764)朝鮮國信使-成大中との筆談.唱和詩卷を中心に」, 『朝鮮學報』84, 朝鮮學會, 1977.

猪口篤志, 『日本漢文學史』, 角川書店, 1984.

田中健夫, 「對馬以酩庵の研究」, 『前近代の國際交流と外交文書』, 吉川弘文館, 1996.

中村眞一郎, 『木村蒹葭堂のサロン』, 新潮社, 2000.

<Abstract>

Literary Writing Conversations during the
Kyemi Visit(癸未使行) and Kondon-sya(混沌社)
in Osaka

Kim, Sung-Jin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 literary writing conversatio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writers during the Kyemi Visit(癸未使行), the Korean envoy's visit in the year of Kyemi(1763 ~ 1764), had an influence over the establishment and prosperity of Kondon-sya(混沌社), an association of literary persons in the region of Knsai(關西). In spite of this paper's dealing with the influence of the Kyeme Visit on Kondon-sya, Kimura-sonsai(木村巽齋) and Kenkado(菴葭堂)-Society were mentioned beforehand from the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Kenkado-Society was the parent of Kondon-sya and that Kimura-sonsai, who was the leading exponent of Kenkado-Society, led the trend of Kondon-sya with Katayama Hokkai(片山北海).

Kondon-sya was not found in any domestic literature before and after the Kyemi Visit. However, Kimura-sonsai and Kenkado Society were relatively detailed in the literary collections of Park Giwon(朴趾源), Lee Dukmoo(李德懋)etc., who corresponded with the writers of the Kyemi Visit. It was not only because Korean intellectuals had no more chance to get in contact with those from the region of Kansai as the envoy visit to Edo ended after the Kyemi Visit, but also because Korean visitors did not notice any difference between

Kenkado Society and Kondon-sya as the members of Kenkado Society who shared literary writing conversations at the inn of Osaka during the Kyemi Visit led the establishment of Kondon-sya.

This study tries to prove this assumption, taking note of the fact that Kimura-sonsai and his fellows sent some poetic writings 'unprecedentedly' through Sushima(對馬島) and Oyekwan(倭館), and considering that it had something to do with Kenkado Society's developmental disorganization and its launching Kondon-sya. That is wh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Kenjou(顯常) and Kimura-sonsai sent poetic letters to Nam Ok(南玉) 'unprecedentedly' in May, 1766.

The writers of the Kyemi Visit and the members of Kenkado Society shared the same respect toward the Jungjoo School(程朱學) and the same criticism toward the Syourai School(徂徠學). This study shows that the academic and ideological sameness spurred them to enter positively into literary exchanges by writing conversations, which eventually gave influence to the developmental disorganization of Kenkado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Kondon-sya.

It is already known that Shibanorithuzan(柴野栗山), Bitoujishu(尾藤二洲), Kogaseiri(古賀精里), etc were all respectful to the Jungjoo School and critical of the Syourai School, and led the Kansei(寬政)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not to mention Naharoudo(那波魯堂), who participated most actively in the writing conversation and literary correspondence with Nam Ok during the Kyemi Visit.

This study has yet to clarify whether the leading exponents of Kenkado Society communicated positively with the writers of the Kyemi Visit out of the same respect toward the Jungjoo School, or

their contact with the writers of the Kyemi Visit escalated their criticism toward the Shourai School and their respect toward the Jungjoo School. It is not only the limitation in this study but also an important task to call for further studies.

Key Words : Kyemi Visit(癸未使行), Literary writing conversations(筆談唱和), Sung Daejung(成大中), Won Junggeo(元中舉), Kim Ingyeom(金仁謙), Joeom(趙職), Park Giwon(朴趾源), Lee Dukmoo(李德懋), Kondon-sya(混沌社), Kenkado(菴葭堂)-Society, Katayama Hokkai(片山北海), Kenjou(顯常) and Kimura-sonsai(木村巽齋), Jungjoo School(程朱學), Syourai School(徂徠學), Shibanorithuzan(柴野栗山), Bitounishu(尾藤二洲), Kogaseiri(古賀精里), Kansei(寬政)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Naharoudo(那波魯堂)

■ 논문접수 : 2010년 3월 10일

■ 심사완료 : 2010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0년 4월 15일